

### 3부 배우의 임무

#### 9강 배역의 준비

- 배역 찾기
  1. 자신과 성별이 같고 연령이 비슷한 배역들을 선택해야 한다.
  2. 자신이 연기하게 될 등장인물에게 정서적으로 급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배역을 선택해야 한다.
  3. 등장인물들이 이미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 장면 자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역을 선택해야 한다.
  4. 자신이 등장인물의 노력이나 고충에 동일시될 수 있는 배역을 선택해야 한다.
  5. 등장인물들과 상황이 자신에게 새인적으로 재미를 주는 배역을 선택해야 한다.
- ‘등장인물’ 찾기
  - 등장인물이 되라.
  - 그래서 자신과 최대한 비슷한 배역을 찾으면 좋은 것이다.
- 장면 편집하기
  - 장면의 길이를 줄인다던지, 두 개의 장면을 하나의 긴 장면으로 결합한다던지, 장면 문제들과 무관한 요소들을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인물도 상의 하에 제거하거나 고쳐 쓸 수 있다.
  - 대본이 완전히 편집되면 배우들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장면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후 암기에 들어가야 한다.
- 암기 방법
  - 암기는 지루하고 힘든 일이지만, 대사들을 정확하게 익혀야 한다. 그 이유는,
    1. 나의 상대가 적당한 대사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 대사를 정확히 익히는 일은 자신의 배역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다.
    3. 대사를 정확히 암기하지 못해 토시를 자꾸 틀리고, 고쳐 말하면, 나의 배역을 약화시키고, 작가의 타이밍 감각을 훼손하며, 연극의 구조, 절정, 운율적 효과의 힘을 감소시킨다.
    4. 그 연극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시원찮게 보일 것이고, 대사를 바꾼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관객은 내가 등장인물의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고 느낄 것이다.
    5. 나의 게으름 때문에 작가와 연극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 대사를 글자 그대로 익혀라**

    - 보통 단순히 대본을 보고 암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 연기할 때 잘 나오지 않는다.
    - 우선 가만히 앉아서 대사를 암기해보면 대사를 자연스럽게 연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GOTE 목록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 나의 대사를 전부 밑줄 치거나 형광펜으로 표시하라.
    - 내 대사는 크게 소리 내어 읽고, 다른 등장인물의 대사는 소리 내지 않고 읽어라.
    - 1/4정도 읽은 다음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하는 식으로 외워라.
    - 그 다음 가릴 것으로 가려 대사를 외워보자.
    - 한번에 한시간 정도.
    -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대사를 내뱉어라.
  - 큐: 액션 큐와 대사 큐
    - 대사를 외울 때에는 항상 상대의 큐도 함께 익혀라. 그래야 타이밍에 맞춰 액션과 대사를 할 수 있다.
    - 액션 큐: 내가 말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문제, 혹은 동작을 이끌어내는 큐
    - 대사 큐: 내가 맞받아야 하는 실제 대사
    - 큐를 외우는 것은 등장인물이 대사를 떠올리는 과정을 연기하는 것이다.

•

- 대사 연구하기
  - 우리는 대사를 암기하는 동안 대사를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등장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 연구는 사적인 부분이며, 여기 상대 없이 당신 스스로가 처음 대사를 연구하게 되는 '연출되지 않은 장면'에서 중요하다. 당신의 연기 상대가 얼마나 훌륭하던 간에, 당신의 연기에 대한 의논 상대가 아니다. 사실상 그는 극 속에서 나의 장애물이다. 어떻게 장면을 연기할지에 대해 당신의 상대와 의견을 일치시키려고 애쓰면서 당신 자신을 혼란시키거나 축소시키지 말라. **최상의 연기 장면은 두 사람 모두가 제각기 의욕적인 등장인물로 비춰지므로 둘 사이의 극적 대립의 결과이다.**
  - 그래서 먼저 **GOTE**를 설정하고 그 목록을 채워 넣음으로서 대사 암기를 완전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GOTE**는 나와 나 자신의 상상력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 10강 리허설

- 리허설
  - 나와 상대방 등장인물 사이의 극적 대립을 연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이다.
  - 리허설은 나의 대사를 익힐 때까지, 덩어리를 잘게 부술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이다.
- 연출되지 않은 리허설
  - 나의 배역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게 해준다.
  - 상대를 연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기를 통해 장면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 5분 분량 장면서 3~5시간의 리허설이면 적당하다.
- 리허설의 대안들
  - 즉흥연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능한 최대 범위 안에서 등장인물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등장인물이 나와 비슷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흥연기는 장면의 정서적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밝히고 등장인물이 경험하는 감정의 깊이를 알게 해준다.
  - 마사지: 상대방과 육체적으로 친밀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대 위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감을 없춘다. 신뢰는 어떤 장면에서나 가치 있는 구성 요소이다.
  - 파티: 연기는 진지한 예술이지만 꼭 사무적일 것까지는 없다. 파티는 리허설을 대신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모여 즐기는 것은 보다 진지한 작업을 완벽하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상대의 기쁨과 흥분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그의 이상과 기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이고 솔직하게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다.